

광주 찾은 이낙연 '흔들리는 텃밭 민심 잡기'

'MB·朴' 사면론 후 지지율 급락...문대통령 '사면 불가론'에 "뜻 존중"

5·18 묘지 참배·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예방...다음달엔 전남 방문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을 꺼내 들었다가 지지율 급락을 불러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8일 광주에서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흔들린 텃밭 잡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사면 불가론을 밝힘에 따라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뒤 광주에서 민심 달래기에 집중했다.

이낙연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 대통령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에 대해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참배 후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하자 더는 언급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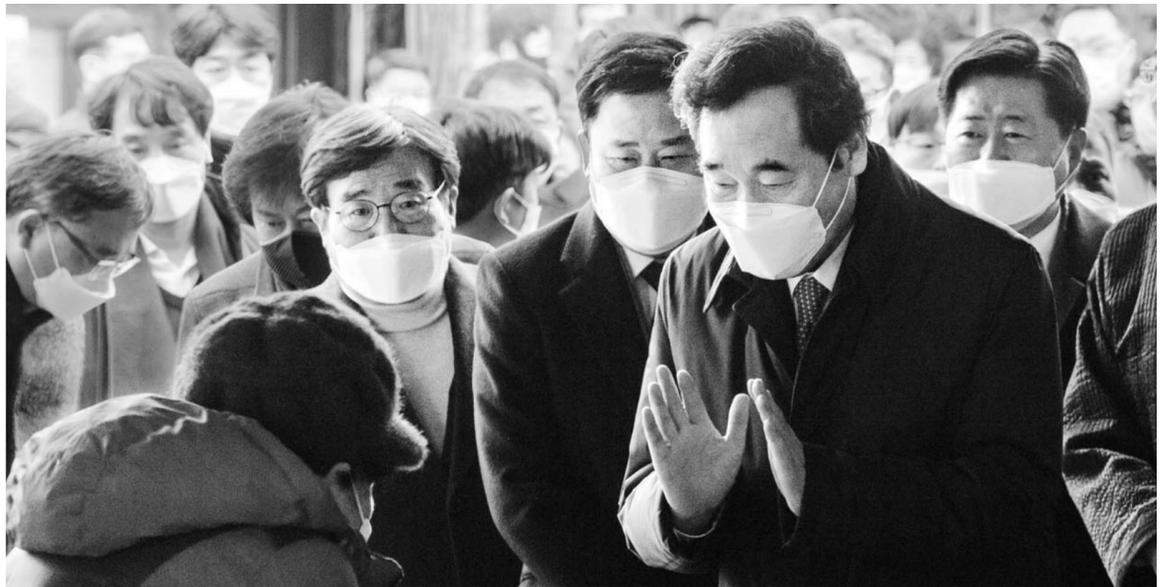
이날 5·18묘지를 참배하는 이 대표 주변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사면을 완전 철회하라'는 피켓을 든 일부 시민들이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지키며 '대세론'을 형성해왔지만, 연초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며 대세가 흔들리고 있다. 이날 이 대표의 광주 방문은 자신의 고향이자 최대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도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지지율을 추월하며 역풍을 맞자 텃밭에서부터 새롭게 기반을 다져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5·18 묘지에서 "지난해 국회에서 5·18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앞으로 5·18에 대해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5월 정신이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햇불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묘역 개선은 5월 가족들의 오랜 숙원"이라면서 "그것을 늦지 않게 용역을 주고 가장 좋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면서 광주 민심의 상징인 5·18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5·18묘지 참배에 앞서 지역 최대 전통 시장인 양동시장에 들며 상인들을 만나 "힘을 내시라"고 격려했다. 이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당시 들렀던 국립묘지에서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장위원장과 상인 등이 동석해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표가 2년 만에 '노무현 국립묘지'를 방문한 배경에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위기 상황'을



18일 광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담겼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는 양동시장 방문, 5·18 묘역 참배에 이어

전주교 광주대교구장인 김희중 주교도 예방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설 명절 전에 지지 기반인 전남

을 다시 찾을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與 '이익공유제' 사회적기금·채권 병행추진

최고위, 기업 자발적 참여 방안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논의에 속도를 냈다. 당내에서는 '사회책임채권' 발행이나 사회연대기금 조성 등으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구체적인 방안이 거론됐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가 코로나 불평등 심화 속에서 시의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

등 해소 테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공유된 국내외 사례를 거론하며 "이익공유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여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고 확산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 회의에서는 해외의 '사회적 기금 모델'도 국내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이익공유제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국민에 알려 '붙임'을 조성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민간 지원제도를 신속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불평등 해소 TF가 분야별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출 의무화 시기를 2030년에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공유가 신속히 되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이 투자받은 돈을 EGS 분야에 한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 이른바 사회적채권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새마을금고 예금·대출 금융당국 직접 감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은 18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하여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 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 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2020년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대상인



농협과 수협은 2019년 총 자산 342조와 45조원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현행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 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 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김승남 '세월호참사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8일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배상금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부와 자원봉사자, 당시 재학생과 교직원 등을 피해자에 포함했다. 세월호 관련



자료를 참사 피해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안산 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2015년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에 충분치 못한 부분이 있다"며 "개정안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피해보상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반등

리얼미터 조사 2.3%p 상승 37.9%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반등했다. 4월 재보선의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 오차범위 밖 우위를 이어갔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1~15일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보다 2.3%p포인트 오른 37.9%였다고 18일 밝혔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1.6%p포인트 내린

31.9%, 민주당이 1.6%p포인트 오른 30.9%였다. 그밖에 국민의당 7.1%, 정의당 5.0%, 열린민주당 5.0% 등이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5.0%, 민주당은 26.3%였다. 격차가 8.7%p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이 1.3%p포인트 오른 40.1%, 민주당이 4.8%p포인트 오른 26.1%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당정, 내일 설 민생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는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연 원내대표,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자리한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설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취약계층 지원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탁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듣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평생어부바 신탁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70~8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cu08171@cu.co.kr 1644-7990



문흥본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동광주지점 264-4150